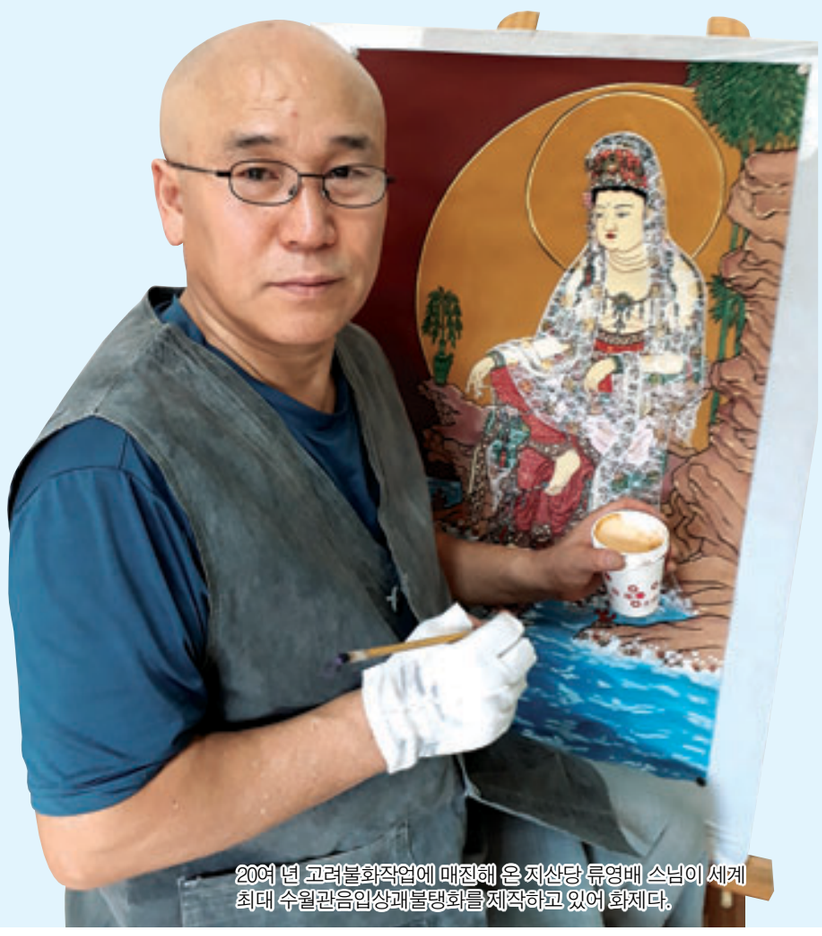
“세계 최대 괘불탱화로 평화 기원합니다”

지산당 류영배 스님,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 제작 화제

출가 전 불교·그림에 문외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만난 후
32살 때 출가, 화승의 길 걸어
국태민안 발원한 고려 승려처럼
평화 위해 초대형 탱화 원력


20여 년 고려불화작업에 매진해 온 지산당 류영배 스님이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고 있어 화제다.

“원래 그림을 아예 못 그렸어요. 붓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무얼 그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셨죠.”

출가 전 그림과 불교에는 문외한이었던 지산당 류영배 스님은 처음에는 꿈 속 그림의 정체가 관세음보살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막연히 ‘천사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관세음보살인 것 같다”는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다. 스님은 그 꿈을 계기로 32살 되던 해 발심 출가, 화승(畵僧)의 길에 접어들었다.

여류문인 김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김태신 스님의 맥을 이어 고려불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산당 류영배 스님이 세계 최대의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고 있어 화제다. 무려 높이 30m, 가로 8m 규모다.

지산 스님은 2001년 2월 삼화불교대학 불교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김태신 스님의 제자가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고려불화 작업에 몰두했다. “고려불화는 가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하는 지산 스님은 “한국의 불화는 단순한 그림에서 끝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관, 우주관, 인생관 등 내면세계가 폭넓게 담겨있다. 고려불화는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해왔다”고 고려불화의 매력을 자랑한다.

스님이 초대형 괘불탱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은 것은 드라마틱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공주 갑사에서 괘불탱화를 처음 봤는데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괘불탱화를 한 번 쯤 꼭 그려본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괘불탱화에 빠져 있다가 ‘이걸 꼭 그려야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늘 서원했던 괘불탱화 작업은 국가정세와 맞물리며 현실이 됐다. 2015년 여름, 대립된 남북관계를 보며 큰 한탄을 느낀 스님은 고려시대 나라를 위해 불화를 그렸던 화승의 마음으로 화폭 앞에 섰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자 세계 최대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만큼 작업은 수월치 않았다. 종이를 폈다 접었다 하는데도 체력 소모가 심했고, 한 여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해야할 때도 있었다. 스님은 “구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렸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했다. 쓴 지우개만도 수백 개가 될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수월관음입상괘불탱화는 현재 2년에 걸쳐 밑그림을 완성한 상태로, 금분을 사용한 채색 및 배접 작업이 남아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작업 비용이다. 고려불화 특성상 진금(眞金)이 사용돼야하며 배접 작업에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산중 스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스님은 “‘꼭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내 의지가 뚜렷하니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김기정 포유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성찬 감독 등이 ‘아이고, 그 큰 작품을 어떻게 혼자 그리시려고요’라고 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작업을 꼭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산 스님의 작업 과정은 일대기 형식의 영화로도 제작된다. 제작사는 바람소리픽쳐스이며, 홍성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추후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 되면 고려불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화풍을 계승하고 싶다는 지산 스님. 스님의 바람처럼 세계 최대 괘불탱화에 깃든 원력으로 한반도의 안녕과 세계평화가 찾아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지산 류명배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가하고, 삼화불교대학 불교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신춘기획 작품 초대전, 한중미술 교류전, 국제문화 정수전,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전, 종로미술협회전, 국제현대서화작품전, 종로문화역사행상전, 세계평화교류 서화작품전 등에 참여했다. 한국새늘미술대전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스타 힐링멘토 4인과 ‘슈퍼 소울 릴레이’

10월 20~25일 서울·제주서 열려

세계적 힐링멘토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지구촌 힐링 프로그램 ‘슈퍼 소울 릴레이’가 올해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로 찾아온다.

리탐빌은 ‘제3회 슈퍼 소울 릴레이’를 10월 20~25일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한다. ‘슈퍼 소울 릴레이’는 힐링 멘토들이 나서 콘서트 및 명상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다.

이번 힐링멘토로는 ‘더 시크릿’의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김창옥 ‘세.바.사’ 대표강사가 나선다.

세부일정은 △버나드 백위스·김창옥과 떠나는 특별강연 워크숍(10월 23~25일, 제주) △버나드 백위스·혜민 스님·박찬호와 함께하는 특별강연(10월 22일,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부나눔, 박찬호 명상&맥주요가(10월 21일, 서초문화예술공원)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회공원 차원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힐링문화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 (02)3448-9901

박아름 기자



2017 제3회 슈퍼소울 릴레이에는 ‘더 시크릿’의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김창옥 ‘세.바.사’ 대표강사가 나선다.

그리운 금강산, 흑백 필름으로 만나다

고성군·건봉사, 10월 말까지 ‘금강산 전통사찰 과거와 현재’展


1912년 촬영된 건봉사 대웅전 앞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 국립중앙박물관제공 유리건판사진.

금강산 4대 전통사찰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희귀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강원도 고성군과 건봉사는 ‘금강산 전통사찰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을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건봉사 봉서루에서 개최한다. 문화재청이 선정한 2017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금강산 4대 전통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를 비롯해 건봉사와 관련된 희귀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들은 고성군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해 일반에 특별 공개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중에서 금강산 지역 전통사찰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그동안 엽서 크기의 사진으로 볼 수 있던 1912년 촬영 건봉사 대중스님들의 사진은 인물의 얼굴과 복장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대 복원돼 근대불교사 연구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주목된다.

한편 고성군과 건봉사는 ‘금강산 건봉사 불이문화제’와 ‘호국영산재’도 9월 23일 열었다. 두 행사도 2017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의 일환이다.

불이문화제는 고성군의 제1경인 건봉사의 능파교(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지(강원도 지방기념물 제51호), 불이분(고성군 지정문화재 제35호)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이다. 또한 호국영산재는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재를 재해석해 서양 고전음악과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기획했다.

박아름 기자

“T맵, BBS 틀어줘!”

SKT 내비게이션 T맵서 불교방송 라디오 청취 가능

BBS불교방송 라디오를 SKT 내비게이션 T맵에서 청취할 수 있게 됐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SK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T맵X누구’에 BBS불교방송 FM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T맵X누구’는 SK텔레콤이 T맵에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의 말을 알아듣는 내비게이션이다. 이에 청취자들은 T맵을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한 후 T맵에 “불교방송 틀어줘”라고 음성지시하면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서도 BBS불교방송의 FM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BBS불교방송 측은 “청취자가 운전 지역에 따라 지역 주파수 변경 등으로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또 주파수를 잘 모르거나 난청 지역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BBS불교방송 청취가 가능, 청취자 및 가청권 확대로 불법홍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